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화웨이, 네트워크 성능 대폭 향상된 신개념 'Digital Fiber' 소개

■ 2022년 6월 24일, "품질의 네트워크, 디지털 라틴아메리카"를 주제로 진행된 2022 라틴 아메리카 ICT 대회에서, 화웨이는 처음으로 "Digital Fiber"라는 신개념을 선보임. Digital Fiber는 가정,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화웨이는 Digital Fiber 이념과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특성을 결합해 새로운 솔루션인 "FIBRA"를 제시함

- 화웨이 라틴아메리카 영업부 대표 차이멍보(蔡孟波)는 Digital Fiber 개념에 대해 기술 및 상업 관점에서 설명함. 기술적 관점에서 지능적 네트워크 알고리즘, 프리(pre)커넥트 ODN, 광홍채 등을 통해 네트워크 계획 효율성 10배, 배치 효율 70% 향상 등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상업적 관점에서는 가정·기업·클라우드망을 "Digital Fiber"의 3대 주요 응용 장소로, 가정에서는 Fiber to the Room(네트워크 케이블을 광섬유로 교체해 집안 전체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 등 고품질 광역네트워크와 스마트 관리 서비스 지원, 기업에서는 차별화된 인터넷 전용선 제공으로 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향상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에 빠른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겠다는 계획
- 화웨이 고정네트워크(固网) 사업부문 CMO 위에웨이(岳伟)는 "FIBRA는 고정 네트워크의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ETSI(유럽 전기통신 표준 협회) F5G와 IPE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강조함

자료원 : HUawei
<https://www.huawei.com/cn/news/2022/6/intelligent-premium-network>

2 아바타테크·화웨이 협력해 첨단 스마트카 공동 제조

■ 2022년 6월 25일, 아바타(阿维塔)테크와 화웨이가 전면 협약을 체결하여 첨단 스마트카를 공동 제작하기로 결정함. 아바타테크와 화웨이는 신세대 스마트 전기차 기술 플랫폼 CHN을 기반으로 고급 스마트 전기차 제품 시리즈를 갖추고 2025년까지 4종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예정

- 화웨이 영업 서비스부 대표 츠린춘(迟林春)은 "이번 아바타테크와의 사업에서, 우리는 HI(Huawei Inside) 모드를 기초로, 화웨이의 각종 스마트 기술 방안을 전면 탑재해 '아바타11' 모델을 제작할 것이며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거듭날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힘. 또한 고성능, 고안전, 고지능을 3대 특징으로 외관과 성능뿐 아니라 새로운 구조와 고전압 충전력을 갖춘 스마트 전기차를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함
- 아바타테크는 2018년 7월에 설립된 회사로, 창안자동차(长安汽车), 화웨이 그리고 닝더스다이(宁德时代·CATL) 각각의 연구개발과 에너지효율 방면의 노하우를 집약하고 3사의 전략 자원을 심층 통합함으로써 미래 스마트 전기 자동차의 개념을 재정의할 계획

자료원 : 광명왕(光明网)

https://economy.gmw.cn/2022-06/25/content_35836914.htm

3 바이홍(佰鸿) 그룹, 줄기세포 3D 프린트 인공육 기술 개발

- 2022년 6월 16일 시안(西安)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조직 공학 기술과 미래 식품 과학기술 융합발전 정상회담 및 공학화 인공육 제품 발표회(第一届全国组织工程技术与未来食品科技融合发展高峰论坛暨工程化人造肉产品发布会)'에서 바이홍(佰鸿)그룹은 줄기세포 3D 프린트 인공육 기술을 선보임
- 바이홍 그룹의 줄기세포 3D 프린트 인공육 기술은 공정화 기술을 사용해 동물 줄기세포가 근원세포 분화를 거쳐 새로운 육류가공식품을 형성하도록 하고, 줄기세포의 3D 증폭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함. 동 기술의 세포는 소의 탯줄에서 유래했기에 살생이 불필요하고, 세포 표준화, 자가 재생 등의 활용이 가능함. 또한, 생산 과정을 효율화하여 육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식량갈등 문제와 사회환경 등의 민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0년에 설립된 바이홍 그룹은 세포조직 공정과 재생의학 분야에 초점을 맞춘 첨단기술 회사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조직공학 피부', '공학 각막', '줄기세포 전(全)치수 재생' 등이 있음. 바이홍 그룹은 세포육의 식품 속성 수요와 관련 세포육 배양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캐리어도 개발했는데, 이 캐리어는 생물 호환성이 우수하고, 제조환경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며, 식품안전 등급이 보장되며 원가절감 효과도 있어 대규모 생산도 가능함

자료원 : 봉황망(凤凰网)

<https://tech.ifeng.com/c/8Gtqnghlpidi>

4 MS, 퀄컴, 화웨이 등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 주최

- 2022년 6월 22일, 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퀄컴(Qualcomm), 화웨이 등 기업들이 모여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을 개최함. 동 포럼에서는 '상호 운용성 결여가 메타버스를 저해하는 원인'과 '표준개발기구(SDO: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s)의 정의 및 개발기준에 대한 조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됨
- 포럼은 모든 기업에 무료로 개방되며, 해커톤(hackathon,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제한 시간 내 주어진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의 공모전), 플러그페스트(plugfest: 전자 장비의 업체 상호간 호환 동작성 확인 테스트) 등과 같은 실용적인 행동 기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문 용어들과 배치 가이드라인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또한 실시간 3D 그래픽,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물리적 대상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으로 복제하여 재현한 것) 등 공간 컴퓨팅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새로운 통합과 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될 예정
- 포럼 주최자인 크로노스 그룹(Khronos Group)의 회장 닐 트레빗(Neil Trevett)은 "메타버스 스탠더드 포럼은 포괄적이고 열린 메타버스를 위해 필요한 표준화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함. 7월 중 개최 예정인 동 포럼은 회원들의 관심과 필요에 근거하여 3D 자산 및 렌더링, 휴먼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기술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자료원 : 라이트리딩(Light Reading)

<https://www.lightreading.com/big-tech/meta-microsoft-qualcomm-huawei-others-form-metaverse-standards-forum/d/d-id/778458>

5 中 국무원, 디지털 정부 강화를 위한 의견 발표

- 2022년 6월 23일, 중국 국무원이 <디지털 정부 건설 강화에 대한 지도 의견(国务院关于加强数字政府建设的指导意见)>을 발표함. 국무원은 2025년까지 디지털 정부의 정층(顶层) 설계와 시스템 기본 틀 형성을 완료할 것을 요구함
- 주요 목표는 2025년까지 현대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와 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의 완벽한 설계, 건전한 조정 메커니즘, 디지털 이행 능력, 안전 보장, 데이터 자원 등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것임. 이어서 정부의 디지털화 수준을 향상하고,

의사결정 과학화, 사회 통치 정밀화, 공공 서비스 능률화 부문에서 큰 발전을 이루도록 하여 디지털 정부가 국가 중대 전략, 경제 사회의 발전 촉진,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형 정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임. 2035년까지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틀이 더욱 완전해지도록 하며, 정체 협동(整体协同), 빠른 업무처리와 효율성, 공정성을 모두 갖춘 디지털 정부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함

- 디지털 정부의 건설에는 정부의 디지털화 이행 능력 체계 구축, 경제 운영 빅데이터 모니터링 분석 강화, 경제 조정력 향상 등이 요구되고, 또한 디지털 정부 전방위 안전보장체계, 개방 공유 데이터 자원 체계, 스마트 집약 플랫폼 지원 체계 등의 많은 체계 구축과 강화가 필요함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06/23/content_5697299.htm